



NEWSLETTER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CUFS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contents

- 1 Teaching Tips**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 2 Learning Tips**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 3 INTERVIEW**
- 4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업보고 및 알림**





Teaching Tips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Teaching Tips

>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 학습 기법 25가지를 소개합니다. 각 기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Concept Mapping

학생들이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체계화하는 기법으로 주로 복잡한 개념이나 주제를 이해할 때 사용되며, 교사는 자료와 명확한 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생물 수업에서 세포 구조와 기능을 개념 맵으로 시각화

2. Think-Pair-Share

학생이 혼자 생각한 후 짝과 토론하고, 이를 학급과 공유해 사고를 확장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수업에 유용하며, 교사는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윤리 수업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토론

3. Write-Pair-Share

학생이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하고 짝과 논의 후 발표합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한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죠. 교사는 다양한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합니다.

예 문학 수업에서 등장인물의 행동 분석

4. Fishbowl

소수 학생이 원 안에서 토론하고 나머지는 관찰합니다. 이후 전체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잡한 주제를 심층 탐구할 때 적합하며 교사는 명확한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구분해 줘야 합니다.

예 정치학 수업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논의

5. Four Corners

학생들이 네 구역 중 하나로 이동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토론합니다. 교사는 명확한 질문과 선택지를 제공하고 각 코너의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예 윤리 수업에서 사형 제도 찬반 토론

Teaching Tips

>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6. Flipped Teaching

학생들이 수업 전 학습자료를 보고, 수업 시간에 토론과 실습 등 심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사는 사전 자료를 제공하고 수업에서 논의나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예) 역사 수업에서 산업 혁명의 사회적 영향

7. Peer Teaching

학생들이 특정 개념을 가르치며 이해도를 높입니다. 교사는 주제를 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수학 수업에서 개념별 설명 후 동료와 피드백

8. Jigsaw

주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학생이 맡은 부분을 학습하고, 다시 모여 가르침으로써 주제를 완성합니다. 협력적 학습을 강화하며 교사는 주제를 적절히 분할해야 합니다.

예) 환경 수업에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

9. Snowball Discussion

소규모 토론을 시작해 점점 그룹을 확장하며 논의합니다. 논쟁적 주제나 다양한 의견을 필요로 할 때 유용합니다.

예) 정치학에서 민주주의 장단점 논의

10. Peer Review

학생들이 동료의 과제를 평가하고 피드백합니다. 교사는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전체 과정을 감독하며, 필요시 추가 지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문학 수업에서 에세이 피드백

11. Learning Stations

교실을 여러 활동 구역으로 나누어 각 스테이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교사는 각 스테이션의 활동을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생태계 수업에서 실험, 분석, 이론 학습

Teaching Tips

>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12. Question Relay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는 기법입니다. 교사는 질문을 유도할 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 문학 수업에서 등장인물의 행동 분석

13. Hot Seat

한 학생이 특정 역할을 맡아 동료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즉각적 사고와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역할과 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예 역사 수업에서 나폴레옹 역할 토론

14. Mock Trial

모의재판 형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변론, 판결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교사는 사건과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 윤리 수업에서 인공지능의 생명 결정

15. Gallery Walk

학습자료를 교실에 전시하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피드백합니다. 교사는 전시물 배치와 피드백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예 환경 수업에서 기후 변화 포스터 제작 및 발표

16. Crisis Simulation

위기 상황을 가정해 역할을 맡아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 능력 배양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각 역할에 맞는 자료나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진행을 감독하고, 필요시 상황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 국제 정치 수업에서 외교적 위기 대응

Teaching Tips

>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17. Role-Playing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의 특정 인물을 맡아 상황을 체험합니다. 교사는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역할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 윤리 수업에서 안락사 문제 토론

18. Mock Talk Show

토크쇼 형식으로 특정 주제를 토론하며 다양한 관점을 탐구합니다. 교사는 역할과 질문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예 철학 수업에서 자유 의지와 결정론 논의

19. Case Study:

실제 사례를 분석해 문제 해결합니다.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며 교사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경영학 수업에서 기업의 경영 위기 사례 분석

20. Problem-Based Learning (PBL)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복합적 사고와 협력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예 환경 수업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21. Expert Panels

학생들이 주제의 전문가 역할로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주제에 관해 깊이 연구하고, 지식 전달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습자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심층적 학습을 위한 자료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의 발표 내용을 평가하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경제학 수업에서 세계 경제 위기 대응 발표

Teaching Tips

>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22. Speed Dating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과 의견을 빠르게 교환하는 기법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사는 논의 주제와 질문을 준비해야 하고, Speed Dating이 끝난 후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 윤리 수업에서 안락사에 대한 입장 교환

23. BP-Style Debate

네 팀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리적 주장을 펼치며 토론하는 기법입니다. 논쟁적 주제에서 유용하며, 논리적 사고, 설득력,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사는 논의 주제를 명확하게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토론을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학생 주장을 평가 및 피드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예) 생명윤리에 관한 토론

24. Muddiest Point

학생들이 수업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기록하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이나 이론을 다룰 때 효과적이며,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도를 자가 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예) 과학 실험 과정 중 어려운 점 기록 및 교사의 보충 설명 제공

25. Exit Ticket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기 전에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수업 내용의 이해도와 피드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기법입니다. 교사는 수업의 핵심을 요약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간단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수업에서 다룬 주제에 대한 학생들이 생각을 짧게 적도록 유도

Teaching Tips

>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을 위한 학습 활동 기법 25가지

지금까지 소개한 25가지의 학습 활동 기법은 다양한 능동 학습 기법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사고를 깊이 있게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예시와 적용 방안을 포함하여 교육자들이 학습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 '생성형 AI를 활용한 액티브 러닝용 학습 활동 설계: 능동 학습기법 25가지',
태재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이정석 교수



Learning Tips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Learning Tips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 저작권 핵심 요약

1) 저작권이란?

저작권(Copyright)

무체물(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



소유권(Property)

유체물(형태가 있는 물건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여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 없음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만든 목적

권리자 권리 보호와 책임 부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와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

2) 누구를 보호하는 법일까?



저작자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들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사,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 등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이용자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1. 저작권 핵심 요약

3) 무엇을 보호하는 법일까?

① 저작권

저작권

창작자의 마음을 지켜주는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는 권리

- 저작자 사망 시 자동으로 소멸
- 상속되거나 양도할 수 없음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주는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 양도와 상속 가능
-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음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공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지, 공표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로 할지, 어떤 형태로 공표를 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복제권

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실연, 공연, 연주, 가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공중 송신권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성명 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에 자신 실명이나 이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전시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 유지권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대여권

판매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

Learning Tips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 저작권 핵심 요약

3) 무엇을 보호하는 법일까?

②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웹툰, 만화는 물론이고 노래가사, 유튜브 콘텐츠, 게임, 그래피티, SNS에 올라온 사진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법 제4조 참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을 포함하는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4)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침해자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
및 무분별한 우회 이용
행위

창작자

이익 상실에 따른 의지
저하, 창작자의 창작
행위 감소

이용 콘텐츠 감소

대중

문화향유 이용 기회
축소, 정당 이용자
부담비용 상승

이후 불법이용자
이용비용 또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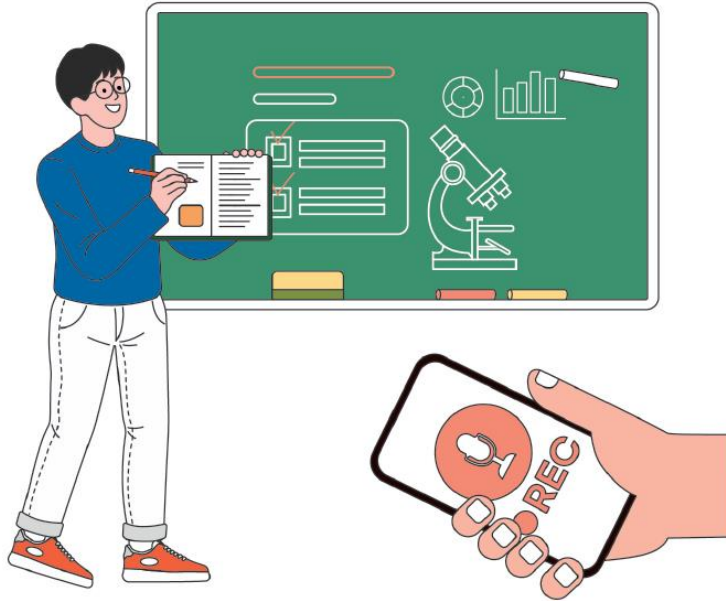
Learning Tips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Q1. 수업 중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Answer.

수업 중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초상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고 녹음·녹화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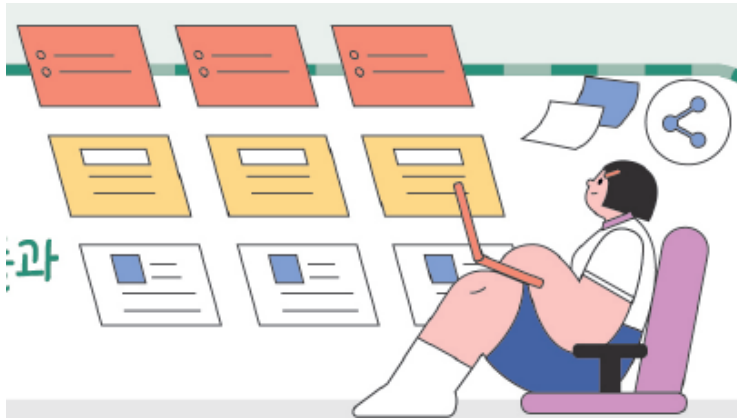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는 인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용 용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강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녹화의 경우 교수자 동의하지 않으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는 다음 허락 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Q2. 수업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 자료를 수업 이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Answer.

수업시간에 제공받은 수업 PPT자료는 교수님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온라인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등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온라인 강의 시스템 등)에서만 활용하고, 외부 유출 시 나도 모르는 사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위해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간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일부분'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① 어문저작물: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
- ② 음악저작물: 전체 저작물의 20%(최대 5분) 이내
- ③ 영상저작물: 전체 저작물의 20%(최대 15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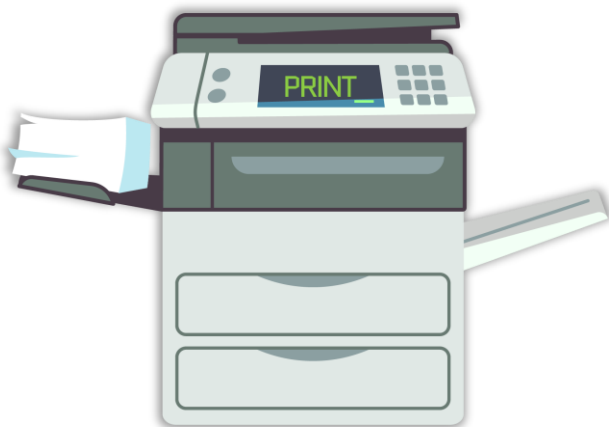
하지만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이 아니거나 여러 도서를 편집하는 등 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5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Q3. 학교 인근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하면 수업용 교재나 도서 등 책을 제본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냈으니 괜찮지 않나요?



Answer.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부득이 교재에서 꼭 필요한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도 참고를 위해 복사하여 혼자 보는 것은 괜찮지만, 친구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Learning Tips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Q4. 공부를 할 때 태블릿 PC를 이용해 필기를 하는 것이 편하여,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Answer.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공교재 PDF 파일 공유 행위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태블릿 PC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한 디지털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꼭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비영리성의 물물교환 등의 방법으로 거래, 공유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 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Q5.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교수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Answer.

대학가에서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는 경우, 이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25. 선고 97도2227 판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저작권자인 교수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교수자 작성한 과거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족보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이 출제한 기출문제를 직접 간추려 편집하여도 출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족보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면 족보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SNS나 온라인상에 해당 시험문제를 업로드할 경우 복제권 이외에 공중송신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Q6. 시험 족보는 일반적으로 다들 돌려보는데 돈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Answer.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행위는 영리인지 아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복제나 전송을 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복제’의 경우에 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집에서와 같이 한정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고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요건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족보나 강의 내용을 업로드하면, 이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에 의한 복제는 사적 이용을 복제로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쇄소 등에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1) 대학 생활과 저작권

Q7.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발표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nswer.

다른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 그림, 사진, 도표, 음악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얻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올바른 인용(*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끌어다 쓰는 것)방법으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적절한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출처가 확실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료 폰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다음 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실히 숙지하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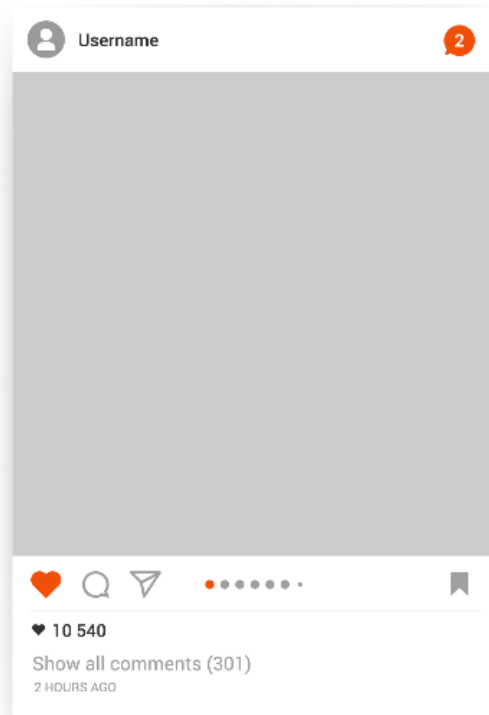
Learning Tips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2) 일상생활과 저작권

Q1. 자신이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에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Answer.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받지 않고 번역을 하거나, 시낭송, 동화 구연, 특정 저작물 낭독, 그림책 공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책·영화에 대한 리뷰를 올리거나 웹툰·만화 등을 캡처하여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광고 수익 등의 간접 수익 등이 없이 순수 비영리 활동이더라도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2) 일상생활과 저작권

Q2.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서체(폰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Answer.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서체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또는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정품이 아니라면 공개되는 저작물에 함부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사용하고 이용약관을 숙지하여 이용조건과 범위를 제대로 확인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1) 과제·논문 작성 시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

Q2.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서체(폰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인용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자기가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했음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부호(따옴표)를 활용해서 내 글이 아닌 부분과 함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1) 인용 방법과 예시

- 직접인용

직접인용은 다음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남의 글을 가져와 자기 글 속에 넣으면서 인용부호(큰 따옴표)로 표시하고, 그 출처를 밝혀주는 방식입니다.

Learning Tips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3.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올바른 인용의 예

독자의 책 읽기 과정은 적어도 세 단계의 과정을 포함한다. “첫째는 독자가 어떤 책과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 두번째는 책을 읽어가는 해석·해독의 과정, 세번째는 책을 읽은 뒤 책 읽기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¹⁾ 그러므로 독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복잡한 정신 작용으로서 다양한 지적 기능들이 한데 어울려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은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천정환(2003).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47쪽.

잘못된 인용의 예

독자의 책 읽기 과정은 독자가 어떤 책과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 책을 읽어가는 해석·해독의 과정, 책을 읽은 뒤 책 읽기의 영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 등 적어도 세 단계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독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복잡한 정신 작용으로서 다양한 지적 기능들이 한데 어울려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은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 나오는 잘못된 인용의 예를 보면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글과 자신의 글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로 표절이라는 중대한 잘못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3.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1) 인용 방법과 예시

- 간접인용

간접인용을 할 때는 인용부호(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인용한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용의 예

모든 학계를 통틀어 통용되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객관적인 학문적 결과란 없다”는 것이다. 이말은 그만큼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주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학계의 현실에 대하여 ‘지식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는 이매뉴얼 윌러스틴 같은 학자는 어떤 새로운 과학적 주장이 유효하거나 타당하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식이 복잡하게 전문화하고 각각의 특정한 과학적 진술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출된 증거의 질이나 자료 분석에 적용된 이론적 논거의 엄밀성을 합당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¹⁾

그러면서 “그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으며 이내 스스로 “우리는 저명한 권위에 의해 축적된 증거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한다. 이어 “우리는 인용된 학자나 저널의 중언에 대한 신뢰도를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것은 기록된 형태로는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보다 높은 등급의 신뢰도에서 그런 신뢰도의 기준을 구한다는 점, 만약 우리가 아는 ‘진지한’ 사람이 『네이처』가 일류이고 믿을 만한 저널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개 그렇다고 믿는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얼마나 많은 암묵적인 신뢰의 등급들이 서로서로에 기초를 두고 형성되는 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²⁾ 하물며 내용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에만 얽매이거나, 그러한 형식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글쓰기의 결과로 탄생한 연구 성과나 비평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 논문은 물론이지만 서평쓰이에 있어서 정확한 글쓰기와 더불어 ‘인용’한 자료의 정확한 출처 명시가 필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1)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희석 옮김(2007),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14~15쪽.

2)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희석 옮김(2007), 위의 책, 15쪽.

간접인용을 한 글들을 보면 출처를 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되도록 인용 분량을 짧게 하거나, 인용표시구(“어무개는~라고 한다” 또는 “아무개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접인용을 할 때에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자신의 글에 맞게 말바꿔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1) 인용 방법과 예시

- 간접인용

만일 부득이하게 남이 먼저 인용한 것을 다시 가져올 때에는 원문 출처와 함께 재인용 출처를 밝히고, '재인용'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용의 예

인쇄매체의 원형은 출판 분야에서 비롯되었다. 베일리(H. S. Bailey)는 인쇄와 출판의 관계에 대해 “인쇄(printing)는 건축과 마찬가지로 봉사의 예술이다. 인쇄는 출판에 봉사하고 출판은 문명에 봉사한다” (Hebrt S, Bailey[1970], *The Art and Science of Book Publishing*, Austin:University of Texas Press, 195쪽.)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인쇄술이 단순히 출판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진보의 주요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인쇄는 인류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출판을 포함한 인쇄매체에 봉사하는 수주산업으로 그 공정이 예나 지금이나 매우 복잡하여, 인쇄를 정의한다는 것은 손쉽지가 않다.

* 출처: 김기태(200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도서출판 이채, 19~20쪽.

만일 위의 글에서 ‘허버트 베일리’의 견해를 재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ebrt S, Bailey[1970], *The Art and Science of Book Publishing*, Austin:University of Texas Press, 195쪽., 김기태(200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도서출판 이채, 19~20쪽 재인용.

3.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1) 인용 방법과 예시

- 출처 표기 방법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 출처 표시 방법

인터넷 매체 기사의 경우: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를 제시합니다.

인터넷 매체 기사 →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경향신문>, 2014. 07.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212305&code=990101>[접속일: 2014. 07. 13.].
- “페이스북 감정 조작 실험 파문”, <프레시안>, 2014. 07. 13.,
<http://www.perssian.com/news/article.html?no=118471>[접속일: 2014. 07. 15.].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이용한 저서·논문·칼럼·언론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목록으로, 글의 맨 마지막에 놓입니다. 다만, 주석의 표기 방식과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학문 분야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마다 특정 기준에 따라 통일성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3.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1) 인용 방법과 예시

- 출처 표기 방법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 출처 표시 방법

인터넷 매체 기사의 경우: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를 제시합니다.

인터넷 매체 기사 →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경향신문>, 2014. 07.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212305&code=990101>[접속일:2014. 07 13.].
- “페이스북 감정 조작 실험 파문”, <프레시안>, 2014. 07. 13.,
<http://www.perssian.com/news/article.html?no=118471>[접속일: 2014. 07. 15.].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이용한 저서·논문·칼럼·언론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목록으로, 글의 맨 마지막에 놓입니다. 다만, 주석의 표기 방식과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학문 분야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마다 특정 기준에 따라 통일성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3.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작물 이용하기

[2] 저작물 인용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점

첫째,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인용문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왜곡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부분만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저서명, 학술지의 권호수, 쪽수,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출처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해야 합니다.

넷째,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학술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인격적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즉, 다른 연구자의 생각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다른 저작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인용부호로써 표시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또, 다른 저작자의 말을 자신이 쉽게 풀어쓰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신의 문체가 원문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원문과 비슷한 경우에는 차라리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우수 정우철 교수
(도슨트와 떠나는 미술 명작 여행)

INTERVIEW

> 2024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우수 정우철 교수 (도슨트와 떠나는 미술 명작 여행)

1. 먼저 교수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술관에서 작품 해설도 하고 미술 관련 책도 집필하고 있는 도슨트 겸 작가 정우철입니다.

2. 현재 담당하고 계신 과목 및 과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 ‘도슨트와 떠나는 미술 명작 여행’ 강의 콘텐츠 중 한 장면

아테나 교양학부에서 ‘도슨트와 떠나는 미술 명작 여행’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술 강연이긴 한데 그전에는 어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사조나 어떤 분석을 얘기했다면 제 과목은 약간은 결을 조금 달리해서 그걸 그린 화가에 초점을 맞춰서 들려주는 강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연을 만들 때 미술 강연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지금 인문학적으로 이런 한 화가의 인생과 거장이 되는 스토리를 들려주자’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강연입니다.

3. 강의를 개발할 때 혹은 운영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교수님만의 강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건데, 사실 다른 짬뽕짬뽕한 일회성 강연을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강연 자체를 긴 시간 동안 만드는 작업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양 과목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걸 그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간 그 작품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이해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학문이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도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연이 끝났을 때 조금 더 여운이 남고 어떤 공부를 했다고보다도 “아~ 정말 이게 인간의 이야기구나... 그러면서도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신념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신념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일단 2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제작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앞에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강연 자체를 해야 하니까. 처음에 제작할 때는 그게 너무나 어색했고 그래도 어색하면 또 듣는 사람도 어색해지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일도 하면서 이게 수업 관리도 해야 하니까 학생들 관리도 저도 모르게 잠깐 한눈팔면은 또 하루가 지나면서 질문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최대한 주어진 시간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들어가면서 일정하게 질문을 드랍해주고 그러한 패턴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익숙해지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그걸 많이 신경을 썼죠.

5. 마지막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는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교수님들인데 그냥 저는 약간 이번에 아무래도 미술이라는 게 요즘 좀 뜨고 있고, 관심도 높아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나마 얘기하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처음같이 했잖아요.

저도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듣는 거니까, 듣는 사람들이 학생이니까, 최대한 뭔가 여운이 남는 강연을 같이 만들고, 같이 뭔가 할 학생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수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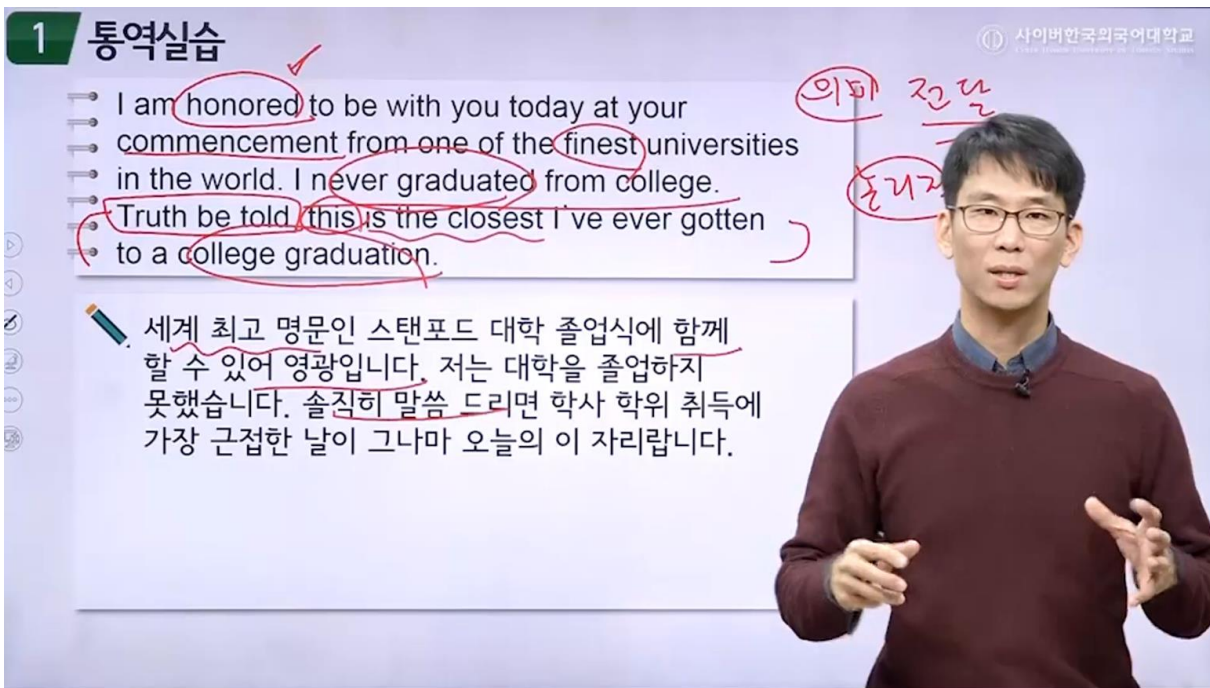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우수 박헌일 교수
(영한순차통역)

INTERVIEW

> 2024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우수 박헌일 교수 (영한순차통역)

1. 현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지금까지 강의해 오신 과목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영한순차통역’ 강의 콘텐츠 중 한 장면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의 박헌일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1학기에는 영한순차통역, 한영순차통역, 중급영한번역이 있고 2학기 과목으로는 통역번역이론, 관광가이드영어 그리고 중급한영번역이 있습니다.

번역하고 통역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그 앞에 붙는 영한, 한영은 통역이나 번역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한이라고 하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하든 번역을 하든 결과물이 영한일 경우엔 이제 한국어가 결과물이 되는 거고 한영일 경우에는 한국어를 듣거나 읽고서는 영어로 말하거나 쓰는 그런 과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영어 같은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소들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문화를 어떻게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제까지 담당해 왔던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수자 역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강의 개발 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는 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들을 주로 통번역 과목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통역이나 번역이나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통역과목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갭이 원문을 듣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런 통역을 수행해야 하는 거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시차를 두고서는 결과물이 생기고는 하죠. 그래서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를 좀 꼼꼼히 살펴본 후에 한번 초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좀 놔뒀다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훨씬 더 정교하게 다른 언어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즉시성에서의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수업에 실제적으로 담기 위해서 통역 같은 경우에는 원문이 좀 길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의미를 캐치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어 표현들 원문이 좀 추상적이고 길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쉽고 간결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의 내용구성을 하고 있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올바른 혹은 적절한 번역 버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할 때 버전 그리고 원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결과물 언어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번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드리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왜냐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요즘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좀 쉽게 쉽게 편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럼 그곳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역이나 번역 실습 과목들을 좀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통역, 번역 이론 과목에서는 하다 보면 조금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적절한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기준점들 어떤 문제점들이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과목이 통번역이론이고 실질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올바르게 번역, 통역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담는 과목이 통번역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다면, 과목에 따른 교수님만의 강의 및 강의실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예를 들면 주중에는 오후 다섯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다른 시간을 좀 일정하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어떤 특정 시간에 로그인하면 혹은 그 시간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답변을 볼 수 있겠더라는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학기 초에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간결한 답변을 예/아니오 식의 조금 간결한 답변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학기 초에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답변을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한 과목보다는 한영 과목 그러니까 모국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한다거나 영어로 통역을 결과물이 나오게끔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영 과목들 번역이든 통역이든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올바른 번역물이든 통역물이든 영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답을 내용이 좀 많아지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네, 이건 뭐 비단 제 과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일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제일 조금 제약적이라면 제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번역보다는 번역이야 시간차를 두고 피드백을 드려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연사가 말을 하고 바로 통역사가 통역한 다음에 이제 교수자 라든지 평가자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실시간으로 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을 과제를 통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과목의 과제들은 실제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통역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통역한 내용을 제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극복이라면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고생이 참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사이버한국외대에 와서 영어학부 과목 촬영을 하면서 일단 오프라인 강의하고는 많이 달라서 중간에 농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일단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제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주로 학기가 개강하고 나서 게시판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조언을 듣고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당연히 선배의 교수님들께는 제가 감히 뭐라고 조언을 못 드릴 것 같고 저보다 뒤에 혹은 최근에 사이버한국외대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혹은 강사 선생님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많이 문의하시라고 많이 물어보시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을 해줄 테니까 그게 선배 교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는 또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같이 촬영을 도와주시는 여기 직원 선생님들도 사실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정 어떤 학부에 제한돼서 촬영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부를 틀어서 이제 과목을 제작하시는 데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기타 다른 사회계열학부 교수님들의 과목을 촬영하면서 쌓게 되는 노하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많이 조언은 해주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개발하는게 좋겠는지 디자인하는게 좋겠는지 많이 물어보시면 또 아주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을 경험들을 공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튜터평가 우수 강수아 튜터
(외국어교육론)

1.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아테나 교양학부의 외국어 교육론(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 지금까지 어떤 교과목들의 튜터를 해오셨습니까?

2023년 1학기에 동일한 과목인 아테나 교양학부의 외국어 교육론(이) 과목의 튜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2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같은 과목을 담당했기에 역할 자체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맡은 분반의 수강생님들이 강의 관련 내용이나 시험 등에 관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셨기에 문의 사항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2.3 과목에 따른 튜터의 수행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의 튜터 수행 노하우는 크게 3가지로 1) 공지 및 매뉴얼 확인, 2) 기간 준수, 3) LMS 활용입니다.

1) 공지 및 매뉴얼 확인

개강 전 사이버한국외대에서는 각 튜터들에게 수업 운영 지침, 업무 매뉴얼, 안내자료, 각종 양식 등을 보내며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LMS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한 덕분에 수강생님들의 문의 사항에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또한, 매 주차마다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기간 준수

업무에서 기간 준수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튜터의 업무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수강생분들에게 공지가 늦어진다면 성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강생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각 주차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 모바일 LMS 앱 활용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LMS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LMS 앱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공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튜터 역할 수행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빠른 연락입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수강 신청 중 문제가 생겨 조교님께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조교님의 답이 늦자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강생님들도 과거의 저처럼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의 사항의 답을 듣고 싶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연락을 위해 LMS 모바일 앱을 활용하였고 문의 사항이 올라오면 교수님께 바로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튜터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수강생이나 외국인 수강생님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대폰 연락을 대신해 메일로 연락을 취했는데, 메일은 보낸 메일 내역이 뜨지 않아 다시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메일도 보낸 메일 내역이 뜰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 동료 튜터들과 앞으로 튜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쁜 업무 와중에도, 치열한 육아 중에도 배움의 끈을 이어나가는 수강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이 끝까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의 한 마디 건네주신다면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튜터평가 우수 박진경 튜터
(중급영한번역)

1.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지난 1학기에는 영어학부 박헌일 교수님의 중급영한번역, 한영순차통역과 이종봉 교수님의 영어교수법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번에 최우수 튜터로 선정된 교과목은 박헌일 교수님의 중급영한번역입니다.

2.1 지금까지 어떤 교과목들의 튜터를 해오셨습니까?

영어학부에 워낙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운 좋게도 다양한 교과목의 튜터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7년여 가까이 튜터를 하며 영어학부의 과목 중 중급영한번역, 중급한영번역, 통역&번역이론, 한영순차통역 등의 영어통번역전공의 과목들과 영어교수법, 영어교과교육론 등의 테솔전공의 주요 과목들, 그 외에도 다른 세부전공의 과목들과 공통과목으로 분류되는 여러 초급 교과목들을 포함하여 총 18개 과목의 튜터를 담당했습니다.

2.2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공통과목으로 분류되는 초급과목들의 수강 학우님들의 경우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에 처음으로 신입입으로 오신 경우가 많으십니다. 따라서 공지도 더욱 세분화해서 용어까지 쉽게 설명해 공지해야 합니다. 사이버로 수업수강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컴퓨터나 테블릿 등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명해 드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역&번역이론이라든지 영어교과교육론 등과 같은 이론 교과목들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영어표현이라든지 회화와는 달리 그 학술적인 용어와 이론적 내용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어 용어 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학우님들이 수업을 수강하시며 많이 힘겨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어의 특정분야 학문의 근간인 이론을 학습하는 과목이므로 누구나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그 학우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바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어려운 내용과 이해가 힘든 부분은 문의게시판을 통해 교수님께 여쭙보고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격려를 하는 경우도 많구요.

공통과목처럼 많은 학우님들이 수강하시고 상대적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과목의 경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균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석이라든지, 퀴즈 등의 점수까지 꼼꼼히 잘 챙겨야 하고, 특히 본 시험시 실수 하나가 성적을 많이 좌우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드리곤 합니다. 또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경우에도 시험 난이도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한다든지 의견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3 과목에 따른 튜터의 수행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늘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공지를 올리기 전에도 이 공지를 사이버한국외대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학우님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쉬울지를 고민하며 공지를 올립니다.

둘째는 빠른 피드백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학우님들의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빨리 해소하고 그 이후에 학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질문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강하시는 학우님들의 경우는 시차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제가 그 질문을 보는 즉시 답변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또한 과제나 퀴즈 마감기간이라든지 시험기간 중에는 밤 늦게까지 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우님들의 질문이 없는지, 불편함이 없는지를 늘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변하는 편입니다.

셋째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유고결시와 관련해 이메일 시험에 대한 절차와 확정 이메일 등에 대해 꼼꼼히 안내합니다. 학위를 받는 대학에서의 학습이다보니 아무래도 학우님들 모두 성적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험 날짜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시는 학우님들의 경우 다소 낯선 이메일 시험과 관련해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시험 일정이 정해지면 유고결시와 관련한 주의점 등은 이미 공지에 자세히 올리지만 이에 따른 이후의 절차는 꽤나 다양하고 많아집니다. 저의 경우, 각 유고결시 학우님들의 이메일 시험 일시를 조율하는 것부터 시험절차와 시험시간, 방법과 답안회신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이메일로 안내드리고 이메일 시험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학우님과 때로는 10통이 넘는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경우도 발생하여 시험 기간 중에는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질 뿐 아니라 저 또한 매우 긴장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튜터 역할 수행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학습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 또한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를 편입해 뒤늦게 졸업한 후 영어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을 간 케이스라 재학 당시 컴퓨터로 수강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익숙치 않음, 뒤늦게 다시 시작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당시 튜터님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컸던 기억이 납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곤했던 당시의 제 모습을 기억하며 최대한 학우님들이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합니다. 즉 바쁜 일상 중에 잊어버릴 수 있는 과제, 퀴즈, 출석 등에 대해 문자나 메시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튜터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많은 부분이 공지와 문자 혹은 메시지 등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지를 자세히 읽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시고 나중에 뒤늦게 개인적으로 연락오셔서 확인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인 특혜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문자를 한다거나 전화를 해서 그리 급하지 않은 건을 여쭙어 보신다거나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오시는 경우, 혹은 타 과목의 과제 건등을 문의하시는 경우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공지 한번 읽어보지 않고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시는 학우님들이 계셔서 개인적인 삶이 많이 훼손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혹은 제가 답변이 가능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 등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거나 화면 캡처 등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도움을 드리고, 학우님의 개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어려움일 경우, 학교 헬프데스크의 원격지원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저 또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튜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를 없애기 위해 퀴즈나 과제, 시험 기간 등을 제외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매우 급한 건 외에는 되도록 전화와 문자 등을 삼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학기 초에 공지를 통해 올립니다. 하지만 물론 이 공지조차도 읽지 않으시고 연락들이 많이 오긴 합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급했으니 연락하시겠거니 하고 응대는 하고 있지만, 가끔은 무례하게 문의하시거나 억지스럽게 요구하시는 학우님들을 대할 때는 튜터도 감정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5. 동료 튜터들과 앞으로 튜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현재의 튜터비는 거의 봉사료라고 여겨집니다. 학생들에 대한 이해심과 과목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영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튜터로서의 보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응대해 주실 때 보다 성장되어 가는 학우님들을 보며 그만큼 더 큰 보람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튜터님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로 인해 포기하려 했던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학우님들도 계시고, 튜터님들의 격려 한마디로 인해 그 누군가는 터닝포인트를 갖고 영어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튜터님들의 작은 도움 하나로 해당 학우님은 큰 힘을 얻고 다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만 당 많은 학생들에게 응대해야 하고, 다양한 성향을 지니신 여러 학우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힘든 업무이기는 하지만 튜터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몰상식한 요구나 요청에도 모두 응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선을 정해두고 그 내에서는 최대한 학우님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튜터의 업무는 학생들에 대한 응대 뿐 아니라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교수님과도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잘 응대하고 수업 개발과 운영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당 과목 교수님과도 자주 소통하고 교수님의 과목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튜터평가 우수 조운 튜터
(기초헤어커트)

INTERVIEW

> 2024학년도 1학기 튜터평가 우수 조운 튜터 (기초헤어커트)

1. 현재 튜터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느 학부의 어떤 과목입니까?

K뷰티학부의 기초피부관리실습, 기초헤어커트, 미용색채학, 미용학개론입니다.

2.1 지금까지 어떤 교과목들의 튜터를 해오셨습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튜터 업무가 처음입니다.

2.2 담당해 왔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튜터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실습 특강이 있는 과목에서 교수님의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교수님과의 소통, 학우분들의 실습 특강 관련 질문사항들이 조금 더 있었지만 과목마다의 튜터 역할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2.3 과목에 따른 튜터의 수행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공된 업무 메뉴얼을 주차마다 확인하고 그 외 학교에서 발송되는 메일과, 공지사항들을 참고하며 교수님들과 소통하였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 직원분들과 조교분에게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3. 튜터 역할 수행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업무 매뉴얼에서 주차마다 해야 할 일과 학교에서 메일로 보내주거나 시스템에 올라오는 공지사항들을 확인하고, 학우분들의 문의사항에 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이버대학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튜터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의 튜터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시스템을 숙지하며 튜터 업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학과 조교분과 담당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튜터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동료 튜터들과 앞으로 튜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의 튜터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실수도 하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학과 조교분과 담당 직원분들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학과 조교분이나 담당 직원분들에 문의하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업무메뉴얼과 공지사항을 함께 참고한다면 어려움 없이 튜터 업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일본어학부 서다설 학생)

처음인 사이버대학교에서 A+ 받는 방법

일본어학부 1학년이 1학기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나서 느꼈던 경험과 후기에 관해 적어보겠습니다.

2	2024학년도	1학기	SA11002	기초일본어회화 I	1	전공	3	A+	4.5
3	2024학년도	1학기	SA11026	일본어입문 I (기초)	1	전공	3	A+	4.5

오프라인 대학교와는 상대적으로 사이버 대학교는 온라인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에 영상을 보는 것을 제1순위 목표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까먹을 경우를 대비해 영상 보는 날에 알람을 맞추거나 To-Do 리스트에 적어서 차질 없이 1학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마감 기간이 딱 2주인데 그래서 2주에 한번씩은 강의실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누락된 강의는 없는지 항상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람과 더불어서 그날 할 공부량을 계획할 때는 시간 단위로 짜는 플래너 보다 할 일이 끝나면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는 To-Do 리스트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시간 단위로 짠 계획표가 그 시간 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지 못했을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날 하루 딱 이걸 끝내자! 할 수 있는 To-Do 리스트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언어 공부는 타 공부에 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목이라 생각됩니다.

공부 방법과 관련되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강의 보기 전 단어 암기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저에겐 간단한 한자라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예시 문장을 적어주실 때마다, 중지 버튼 누르고 교재 안에서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수업 흐름도 끊기고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은 적도 몇 차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보기 30분 전에는 교재 안에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고 영상을 봅니다. 더 쉽게 교수님들이 예시로 알려주시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NTERVIEW

> 2024년 1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일본어학부 서다솔 학생)

2) 바로 필기

중간고사 때까지만 해도 영상 보고 3일에서 일주일 혹은 중간고사 기간 때 공책 필기를 했었습니다. 영상 보는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설명도 함께 해주셔서 이해가 갔던 내용이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필기만으론 무슨 내용인지 알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후에 기말고사부터는 영상을 보는 즉시 공책에다가 그날 공부한 내용을 곧바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필기할 때는 교재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공부하니 자연스럽게 그날 내용들도 정리도 되고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3) 문법 정리

시험 기간에는 문법만 따로 모아서 표처럼 만들어서 암기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시험문제 풀었을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한 한기만 들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초급 일본어는 문법에서 공통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 다르게 말하면 한 번만 잘 정리하고 이해하면 다른 과목들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 표로 그려서 아래에 사진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럼, 눈에 보기에 좋고, 문자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도 알 수 있어서 문법 같은 건 표로 정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じ 敬語	な 敬語
정중	기본형이 じ로 끝난 기본형 + じ를 붙인다 からい じ ず - 맵습니다.	기본형이 な로 끝나서 나를 메고 나를 붙인다. し ずか じ ず - 조릅니다.
복정	じ를 메고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から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から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から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じ를 메고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から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から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から <ありません> ~지 않습니다
명사속식	이형용사 + じ + じ からい じ ず じ ず 맵습니다.	이형용사 + じ + じ し ずか な まち 조름한 마을
과거	じ를 메고 かった たのし <かった> 즐거웠다.	기본형 나 메고 かった 楽し <かった> 예뻐다.
과거 정중	じ를 메고 かった じ ず たのし <かった じ ず> 즐거웠습니다.	기본형 나 메고 かった じ ず 楽し <かった じ ず> 예뻐했습니다.
과거 복정	이형용사 <かった じ ず> ~지 않았습니다. たのし <ありません じ ず> 즐겁지 않았습니다.	기본형 나 메고 <ありません じ ず> ~지 않았습니다. 楽し <ありません じ ず> 예쁘지 않았습니다.
중지형	じ를 메고 <지 붙여서> ~하고, ~해서 たのし <지 붙여서> 즐겁고, 즐거워서	기본형 나 메고 <지 붙여서> ~하고, ~해서 楽し <지 붙여서> 예쁘고, 예뻐서

INTERVIEW

> 2024년 1학기 수강사례 1등 후기 (일본어학부 서다솔 학생)

한 학기 사이버 대학교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건 학생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과 일본어로 전화 통화, 멘토·멘티, 동아리, 일본인과의 펜팔 등 여러 가지 진행하는 점과 이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업계에서 번역가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들을 기회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업계에 진출하는지, 번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별 문자로 일정을 알려주셔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들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이버 대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서 모든 걸 다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여러 곳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활동도 다양해서 적응하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파이팅하세요! 필시 도움받을 곳은 많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사례 2등 후기
(한국어학부 박소은 학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2024-1학기 수강 후기 및 학습 방법

2024년 1학기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수업을 들었던 경험은 저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의 시련을 겪었는데 이것은 저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제가 수강한 강좌를 복습하면서 저의 효과적인 학습 경험과 방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기 전에 제 코스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몇 줄을 요청합니다.

첫째, 강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의는 매우 상세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목은 몇 주차 단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매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관용표현’ 코스에서는 기본적인 속어 표현부터 고급 속어 또는 속담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언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와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교수들은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빠르고 상세하며 열정적으로 답합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제출한 후 피드백을 받으면 단순히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잘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여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토론 그룹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더 다양한 학습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료와 지원입니다. 강의 외에도 각종 학습자료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참고서, 글, 동영상 자료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강의에 적합합니다. 온라인 도서관과 같은 학습 지원 서비스도 유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의도한 연구 방법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2023년 1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해 커리큘럼을 시작하기 전에 4년 과정까지 스스로 계획표를 작성했고, 계획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과목별로 공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4년간의 학업 계획표를 완성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2024-1학기 수강 후기 및 학습 방법

또한 매주 일정한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매주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계획을 통해 저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다시 보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학습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듣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메모하고 검토하며, 공부할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해 사전 자료를 작성할 때 미리미리 이해시키고,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교수님의 수업에 따라잡아서 듣는 것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저는 강의를 들을 때면 언제나 메모를 준비하고 중요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이 노트들은 시험 기간이나 과제물을 쓸 때 유용할 겁니다. 또 강의를 듣고 나서 메모를 돌려 강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에 대해서 저는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헌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추론하고, 독서를 더 많이 연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개인 토론과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학습 방법은 토론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신의 의견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로 다른 관점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저의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서로의 학습 진척도를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학습 방법입니다.

저에게 2024년 1학기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수업을 듣는 것은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들의 체계적인 강의 구조와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한국어 실력과 문화 이해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계획적 학습, 메모 및 복습은 물론 토론 및 그룹 학습 참여는 온라인 교육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계속해서 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INTERVIEW

> 2024년 1학기 수강 사례 2등 후기 (한국어학부 박소은 학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2024-1학기 수강 후기 및 학습 방법

교육과정 계획 예정									
학년	영역	1학기			학점	영역	2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1	15	전선	중급한국어	3	18	전선	베트남스 한국어 입문	3	한국어
		전선	고급한국어	3		전선	고급한국어 연습	3	
		전선	여행 한국어	3		전선	실전비즈니스 읽기쓰기	3	
		전선	실전비즈니스 말하기듣기	3		전선	공인한국어시험 5-6급 연습	3	
		전선	실용 한자어	3		전선	한국어 정변역문	3	
2	17	전선	한국어 중용표현	3	18	전선	한국어 인사표현	3	한국어
		전선	한국사회의 이해	3		전선	한국문화의 세계	3	
		전선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3		전선	한국 언어문화의 이해	3	
		교양	아니온사와 함께하는 올바른 우리말	2		교양	FLEX 베트남어 2	3	
		교양	알기 쉬운 교양 한문	2		교양	관공룡역내사 시청대비	3	
3	19	전선	미군사학 들어보기	3	18	전선	관공룡역내사 시청대비	3	한국어
		부선	실용 베트남어 읽기 쓰기	3		부선	한국어 교육방법의 지도법	3	
		교양	한국어 어문규정	3		부선	한국어교육과 연애교수이론	3	
		교양	언어학의 이해	3		부선	한국어 기초문법	3	
		교양	번역도서 기획과 출판 A-Z	2		부선	한국어 이해교육의 이론과 실제	3	
4	18	부선	필수교과목	3	18	부선	필수교과목	3	한국어
		부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론	3		부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해교육론	3	
		부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음교육론	3		부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3	
		부선	한국문화와 다문화 이해	3		부선	한국어교육과 멀티미디어	3	
		부선	한국어 교육방법의 이해	3		부선	한국어 이해교육의 이해	3	

2차 산업혁명

시기: 19C 후반~20C 초반

주도국가: 미국

핵심 발명: 전기, 전화기(모터)

핵심 산업: 자동차, 중화학, 철강

02 산업혁명의 변천

2차 산업혁명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1. 프레젠테이션의 개념

1.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 발표

① 사전적 의미

> 표시, 발표, 소개, 표현, 제출, 설명 등

② 일반적 의미

> 정보 전달을 위해 청중에게 정보, 기획, 제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총체적 행위

>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경험, 노하우 등의 제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 또는 설득하는 모든 의사소통의 수단과 행위

2. 프레젠테이션의 궁극적 목적

> 정보 제공이나 설득 등의 1차 목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중으로부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관용어와 속담

관용어와 속담은 둘 이상의 낱말이 어울려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속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으로 교훈이 담겨 있다.

대부분 관습적으로 사용되다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용표현을 왜 배울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쉽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말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문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용표현이 숨겨진 속 뜻을 알면 언어문화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다른 표현과 달리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것은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한다. 태극 문양의 주변에 있는 4괘는 각각 하늘(건), 땅(곤), 불(리), 물(坎)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할 때 태극기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자신의 집 문가나 창가에 것이 일반적이다.

• 존귀하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하다 → **cao quý, quý báu**

• 조화롭다: 잘 어울리는 성질이 있다 → **hòa hòa**

• 고려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 **suy tính, cân nhắc**

• 화합: 사이 좋게 어울림 → **hòa hợp**

• 달다: 물건을 어떤 곳에 걸거나 못아서 붙여 있게 하다 → **đính**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영어학부 이소담 학생)

혼자서 공부하는 건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우선순위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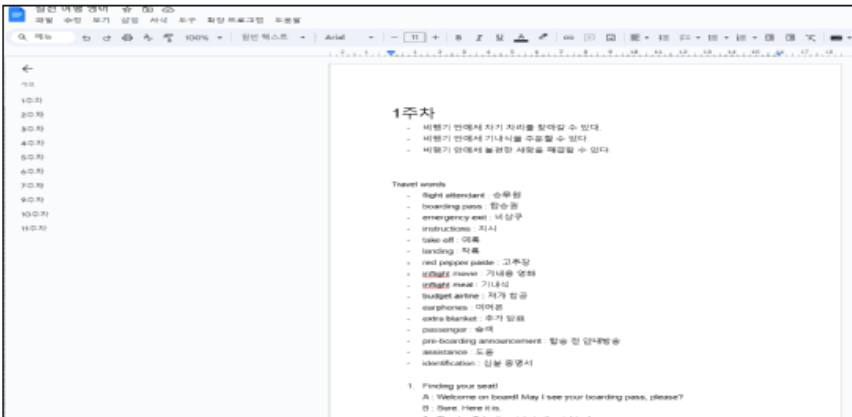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서도 일을 해야 하고, 쉬어야 하는 저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결국 몸도 성적도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학기 초반에는 1. 휴식 2. 학업 3. 일로 정하고, 학기 마지막에는 1. 학업 2. 일 3. 휴식 순서로 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보통 과제와 시험이 막바지에 몰리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2. Google 문서 활용하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집중력이 높아 입학 시에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수업들과 Google 문서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

- 1) Google 문서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서를 만든 후 파일명을 해당 과목명으로 바꿉니다.
- 2) '일반 텍스트' -> '제목'을 누르고 몇 주차인지 적습니다.
- 3) 강의를 수강하면서 작성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건 힘들어

KEY POINT!

1. Ctrl + F: 검색창

내용이 많아 하나하나 찾기 어려울 때, 검색창을 이용하면 단어 또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텍스트' -> '제목': 개요

'일반 텍스트'에서 '제목'을 누르고 몇 주차인지 작성합니다. ≡ 표시를 누르면 각 주차의 개요가 나옵니다. 원하는 주차를 누르면 그 주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3. 댓글

단어의 뜻이나 질문사항이 있을 때 원하는 내용을 드래그하여 댓글 추가를 눌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추가된 부분에는 색깔 표시가 되어 어느 부분에 댓글을 추가했는지 쉽게 볼 수 있고, 댓글을 누르면 어떤 내용에 댓글을 추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저장

Google 문서는 작성 즉시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된다면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가 가능합니다.

5. 강의와 문서 작성은 동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의 듣기와 문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영상만 보면 딴짓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진행하면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 미리미리 공부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저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팁들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건 힘들어

추가로 사이버한국외대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은 각 수업마다 방식, 과제, 시험 등이 달라서 지루하지 않고 교수님과 튜터 선생님들께서 시험이나 과목안내 그리고 질문사항에 빠르게 답변해주시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것은 학비 절감, 장소, 시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배움에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정보들이 늘어나고 발전되어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알고 있는 거라곤 정말 한낱 점의 불과하다고 느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저는 배움에 끝이 없기에 시작만 하면 벌써 반은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비교하는 배움이 아닌 나를 위한 배움이요. 다들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INTERVIEW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영어학부 조하나 학생)

INTERVIEW

> 2024년 1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영어학부 조하나 학생)

자기 관리의 정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성공적인 학습 전략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의 조하나입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점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자유로운 면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본 적이 있지만, 여전히 화면을 보고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Monthly (매월의) 처음에는 동영상 강의를 자유롭게 들다 보니, 마감일을 놓치고 출석 체크에 실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월의 학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에 각 과목의 수업일과 마감일을 적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제와 퀴즈의 마감일을 명확히 표시하면, 모든 일을 놓치는 일 없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번 학기에는 출석 체크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TO DO

- ☐ 중간고사!!!
- ☐ 영어학개론 숙제!
- ☐ ISL 과제
- ☐ 초급영어 퀴즈

NOTES

APRIL 2024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Instructed Second Language 신용영문법	3 고급영어학개론 영어교수법	4	5 영어학개론 초급영어학문	6
7 영어학개론 숙제 마감 (40%) Deadline 4주차	8 영어학개론 6주차	9 Instructed Second Language 신용영문법	10 고급영어학개론 영어교수법	11	12 영어학개론 초급영어학문	13
14 Deadline 5주차	15 Product Shaking 7주차	16 Interview 1-1 Commons Instructed Second Language 신용영문법	17 Interview 2 고급영어학개론 영어교수법	18 Self Shaking / Edit 영어학개론 초급영어학문	19	20
21 ISL 과제 마감 - 영어학개론 숙제 마감 (40%) Deadline 6주차	22 영어 교수법 시험 (20%) - 영어학개론 숙제 마감 Deadline 6주차	23 ISL 시험 2차 (40%) Deadline 6주차	24	25	26	27 초급영어학문 시험 (50%) 고급영어학개론 시험 2차 (50%) Deadline 7주차
28 Deadline 7주차	29 신용영문법 시험 2차 (20%) Deadline 7주차	30 Instructed Second Language 신용영문법				

자기 관리의 정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성공적인 학습 전략

2. Daily (매일의) MBTI 유형이 J인 저는 항상 계획을 세워야만 일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매일 해야 할 수업, 복습할 과목, 질문할 사항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 시간에 맞춰 시험을 치르는 제게는 시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일정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을 정리하고 과제나 퀴즈 마감일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학습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p>beauty bar email confirmation</p> <p>April 10</p> <p>고급영 어휘화 - Softening Comments</p> <p>영어교수법 - Curriculum and course design</p> <p>Arrange Key expressions - 고급영</p> <p>Arrange main idea of analysis - 영어교수법</p> <p>ISLL복습 1-2주차</p> <p>KFC gen orientation intro vid</p> <p>content making with the team</p> <p>April 11</p> <p>ISLL 과제 하기</p> <p>초급영 어휘화 1-4주차 표현 복습</p> <p>고급영 어휘화 1-4주차 표현 복습</p> <p>실용영문법 1-4주차 표현 복습</p> <p>April 12</p> <p>영어학개론 - Semantics</p> <p>초급영 어휘화 - the world around us</p> <p>Review three dimensions of meaning - 영어학개론</p> <p>영어학개론 응답 정리</p> <p>영어교수법 1-5 노트 요점 정리</p> <p>April 13, Sat</p> <p>영어학개론 5주차까지 노트 정리</p>	<p>April 16</p> <p>ISLL 7주차 수업</p> <p>실용영문법 7주차 수업</p> <p>Research styles difference (복습) - read again</p> <p>실용 tense practice - answer quiz</p> <p>ISLL - review from 1-7 (read highlights)</p> <p>영어교수법 6주차까지 노트 정리</p> <p>taft avenue interview Q-amerson</p> <p>ads pic with Nanna</p> <p>April 17</p> <p>고급영 어휘화 7주차 수업</p> <p>영어교수법 수업</p> <p>7주차까지 노트 정리</p> <p>고급영 어휘화 main idea note</p> <p>interview 2 bonifacion street</p> <p>editing #1 inter</p> <p>April 18</p> <p>영어학개론 수업</p> <p>초급영 어휘화 7주차</p> <p>영어학개론 7주차 노트 정리</p> <p>-이전 수업 내용 정리</p> <p>초급영문법 마무리 노트</p>
--	---

자기 관리의 정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성공적인 학습 전략

3. Briefly (간단히) 마지막으로, 제 학습 스타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주요 내용을 하이라이트한 후,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이 노트만으로도 핵심 내용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온 이 습관 덕분에 암기와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튜터님들께 즉시 질문하여 답변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Albert Bandura → conduct research "human agency" through the examination of "self-efficacy"

↳ core motivation is agency → the act of making choices with self-determination.

Agency

↳ manifested in human actions done intentionally

↳ informs individual future course of action. / proactive commitment to future actions.

> (Linguistic Anthropology)

↳ ability of individuals to act independently to make their own choices with regards to what they are going to say in any given situation.

Self-efficacy → 효능감 (effectiveness)

↳ individual's perceptions of "one's capabilities".

↳ has been investigated as a predictor of successful academic achievement

* Higher self-efficacy → correlates to individuals.

↳ (social cognitive theory)

= theories of motivation and models of self-regulation

↳ the processes and components involved when we decide what to think, how to feel

MOTIVATION → most research constructed of psychology.

↳ fundamental for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 BEHAVIOR PERSPECTIVE: "The anticipation of reinforcement"

INTERVIEW

> 2024년 1학기 수강사례 3등 후기 (영어학부 조하나 학생)



자기 관리의 정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성공적인 학습 전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LMS는 공지, 숙제, 과제, 시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Q&A 보드를 통해 교수님과 튜터님들께 쉽게 질문할 수 있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습 방법을 통해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News 업데이트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cufs.ac.kr>)에서는 다양한 e-Learning News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수 및 학습과 관련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2024학년도 하반기 학생 특강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학업적 자기관리' 온라인 특강 개최

지난 2024년 10월 22일,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학업적 자기관리'라는 주제의 온라인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학생 스스로 학업 관련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달성해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특강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방법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강 바로보기



모바일에서 좌측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혹은 하단 접속 방법을 참고하여 접속 후 시청 부탁드립니다.

접속방법

학교 홈페이지(<https://www.cufs.ac.kr/>) 접속 → 상단 [대학생활] 탭 클릭 → 비교과프로그램 [특강영상] 클릭 → 148.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학업적 자기관리' 온라인 특강 보기





3. 2024학년도 'Media Day' 특강 실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본교 교수를 위해 지난 2024년 11월 27일에 'Media Day'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콘텐츠 개발에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과 생성형 AI 솔루션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UFS20(제2교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첫 교수자 특강으로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고품질 교육 콘텐츠 개발의 비전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4. 2024학년도 마이크로러닝센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 특강 실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마이크로러닝센터에서는 지난 12월 17일(화)에 본교 교수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인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 오프라인 및 화상 특강 실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주말 오프라인 및 화상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cufs.ac.kr>) 및 TESOL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cufs.ac.kr>)의 공지사항에 이에 대한 안내가 게시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교수님 및 학우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법과 학습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튜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